

# 근대 조선과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 울릉도론(竹島論)을 중심으로 —

김 영\*

本研究では吉田松陰の韓半島領土に関する発言に注目し、江戸幕府末山口県の藩士らの会、松下村塾を中心として拡散した「韓半島論」という観点から松陰像について分析した。福本義亮『吉田松陰大陸・南進論』(1942)は近代朝鮮との国際的な関係性という観点で重要な資料であり、当時の松陰像を分析するに値する出版物である。彼の「大陸・南進論」の目的は日本の建国精神にあたる日本帝国主義の国是国策であり、それは日本・韓国・満州・中国が一心一体となって南洋湾とインド、アフリカ、オーストラリアに至る大東亜共栄権の確立にあった。松陰の海外拡張論は20世紀初め、改めて恐るべき威力を持って再生産され、彼にとって「大陸」とは、まさにアジア全体の支配であり、そのための第一歩は「朝鮮への支配」であった。

具体的に松陰の朝鮮侵略に対する思想を理解するため、彼と弟子らとの「鬱陵島開拓」に関する書簡を分析する。松陰は鬱陵島開拓に関する手紙を木戸孝允に2通、久坂玄瑞に2通、計4通を送っているが、それによると当時鬱陵島は朝鮮の領土であり、朝鮮を植民地化するためには何よりも最初に鬱陵島を侵略し、日本の支配下に置くべきだと考えられたのである。

キーワード：吉田松陰、鬱陵島、山口県、領土問題、独島  
(요시다 쇼인, 울릉도, 야마구치현, 영토문제, 독도)

## 1. 머리말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에 대한 일본학계의 평가는 시대적 상황과 시대사조에 따라 변화·변천해 왔다. 역사적 인물과 그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사례는 많다. 그것은 각 시대의 가치체계와 인물에 대한 평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

\*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수, kimyoung42@hotmail.com

임없이 현대와 현대를 사는 인간과의 관계선상에서 이해해야 하며 역사와 현실과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2015년 요시다 쇼인은 NHK대하드라마(『꽃 타오르다(花燃ゆ)』, 2015년 1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방영, 54부작)로 다시 한 번 작금의 일본 정치사에 등장했다. 그의 사후 160여 년이 지나 다시 그가 일본 정치가의 입에 오르내리며 되살아나는 이유는 무엇일까.<sup>1)</sup>

본 연구는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데 ‘근대 조선’이라는 관점과 에도 막부말 강성한 육지권력 체제가 동아시아 바다를 지배했던 동아시아 문명 교류사의 시점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요시다 쇼인을 테마로 한 단행본은 약 200권에 달하며 쇼인에 대한 전기류는 더욱 방대한 양에 이른다. 그만큼 쇼인에 대한 인물 분석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며 여전히 근대 조선의 시각에서 쇼인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sup>2)</sup>

최근 한국학계에서는 요시다 쇼인의 사상 분석, 메이지 유신 이후 우익사상에의 영향력<sup>3)</sup>과 사상적 계승 관계에 대해 소수의 연구

1) NHK 공영방송을 통해 1년 여간 방영된 『꽃 타오르다(花燃ゆ)』는 요시다 쇼인의 여동생을 주인공으로 하여 막부말 유신초기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 야마구치 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활발한 홍보를 통해 드라마의 촬영지는 전국적 관광명소로 떠올랐다. 54부작 중 1화부터 17화까지는 요시다 쇼인을 중심으로 그의 일대기가 그려진다. 그리고 17화에서는 1859년 에도에 호송된 쇼인이 老中 마나베 아키카쓰(間部詮勝)의 암살계획을 실토하여 사형을 언도받고 30세의 나이에 처형되는 모습이 그려진다. 쇼인의 여동생의 시선에서 바라본 요시다 쇼인의 일생이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2) 최근 이태진은 요시다 쇼인의 침략적 정세관을 ‘아시아 웅비론’으로 정리하여 한반도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아시아 전체로 확대된, 아시아 침략전쟁의 형태임을 언급했다. 이태진(2014) 『요시다 쇼인(吉田松陰)과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근대 일본 한국 침략의 사상적 기저(基底)-』 『한국사론』 60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pp.551-601.

3) 그 외, 요시다 쇼인에 관한 한국학계에서의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연우(2013) 『日本幕末の指導者像—吉田松陰の天皇観と孟子—』 『퇴계학논집』 12권, 영남퇴계학연구원, pp.265-284. 박연우는 요시다 쇼인의 사상가적 면모에 초점을 맞추어, 유교의 <합리적>인 정치사상인 맹자의 <왕도정치>가 쇼인의 천황관에 수용되었음을 규명하였다.金光男(2012) 『幕末の朝鮮観に関する一考察—吉田松陰を中心に』 『茨城大学人文学紀要』 『社会科学論集』 54, 茨城大学, pp.29-47 ; 保阪裕二(2017) 『길전송음(吉田松陰) 사상의 근대적 전개 서설 -청일전쟁 직전까지의 일본군 정비과정과 첩보활동 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5집, 한일군사문화학회, pp.129-148. 호사카 유지는 명치 일본군 창설에 기여한 요시다 쇼인의 병학사상

가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하지만 여전히 쇼인에 관한 약간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을 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일 간의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영토문제, 특히 울릉도(독도를 포함) 개척론에 관한 그의 언급이 상당한 양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연구는 한국 학계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시다 쇼인의 한반도 영토에 관한 발언에 주목해 당시 에도막부 말 야마구치 현의 번사(藩士)들의 모임, 쇼카손주쿠(松下村塾)를 중심으로 하여 확산된 한반도론이라는 우리 시각에서 바라본 쇼인상(松陰像)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2. 변화를 거듭하는 쇼인상(松陰像)

요시다 쇼인에 대한 최초의 평가는 메이지유신의 선구자로 성공한 혁명가상이었으며 그는 명치정부에 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명치정부 내각의 요직을 구성했던 쇼인의 제자들이 그를 현창(顯彰)했는데 그의 제자들은 기도 다카요시, 다카스기 신사쿠,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에 이르렀다. 막말 우국지사로서 그가 주장한 존왕양이 사상은 메이지유신의 성공 요소로 찬양받았는데 막부에서 천황중심의 강력한 근대국가를 만드는데 해외 진출론과 조선 번국관(蕃國觀)이 결합되어 있었다.

이후 요시다 쇼인은 국정교과서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수신교과서였다. 국정 수신교과서는 천황제 파시즘이 대두하면서 신민(臣民) 교육 강화의 목적으로 규정되던 시기에 간행된 것이었다. 여기엔 스승 쇼인과 제자 다카스기 신사쿠, 구사카 겐즈이 등과의 인간관계가 그려졌는데 그가 쇼카손주쿠에서 ‘제자들과 국내외 사정을 논하고 열심히 존왕애국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노력했다’는 서술 등이 특징적이다.<sup>4)</sup> 바로 교육가로서의 쇼인상을 부

---

에 주목했다. 그의 제자들, 쇼슈번 출신의 메이지 신정부 인사들이 그의 사상과 서구적 군제를 접목시켜 근대 일본군의 기초를 정립했음을 정리했다.

4) 田中彰(2014) 『吉田松陰』中公新書、中央公論新社、pp.82-101.

각시킴을 위한 장치였다고 볼 수 있다.

태평양전쟁 당시에는 쇼인은 일본의 ‘충군애국’의 이상적 인간상으로 고무되었다. 학교교육에서 아동·학생들을 위한 ‘작은 쇼인이 되어라(小松陰たれ)’라는 이데올로기 교육이 이루어졌고 쇼인의 출신지인 야마구치 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때 만들어진 ‘작은 쇼인(小松陰)’이란, 군국소년(소녀)들이 천황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최선의 길은 쇼인을 본받아 ‘존황(尊皇)정신’으로 투철하게 무장하고 전쟁터로 향하는 것이었다. 태평양전쟁 시기에 쇼인은 군국주의 교육에 적합하게 활용되었다.<sup>5)</sup>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패전에 의해 쇼인상은 다시 변화를 경험한다. 군국주의 교육에 대한 반동으로 쇼인에 관한 전기는 자취를 감추고 열광적으로 쇼인상을 만들어 냈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1951년 다시 쇼인은 부활해 미군의 점령정책과 새로운 국제정세에 맞는 쇼인상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천황을 정점으로 한 일본 위정자들의 전쟁책임이 우야무야 흐지부지하게 매듭지어진 시대상황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6)</sup>

위와 관련해, 다나카 아키라(田中彰)는 쇼인 관련 문헌의 간행빈도수에 대한 수량적 경향을 분석해 각 시대별 변천하는 쇼인상을 추적했다. 다나카의 연구에 의하면, 명치시대 후반 이후, 쇼인 관련 문헌이 서서히 출판되기 시작해 점차 증가하지만 대정시대에는 연평균 1권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다가 소화시대에 들어오면 관련 문헌이 증가해, 중일전쟁 개시 전야인 1936년부터 급증해, 태평양전쟁 때 쇼인 관계 연구가 최고치에 달한다.<sup>7)</sup>

5) 田中彰(2014) 前掲書、pp.5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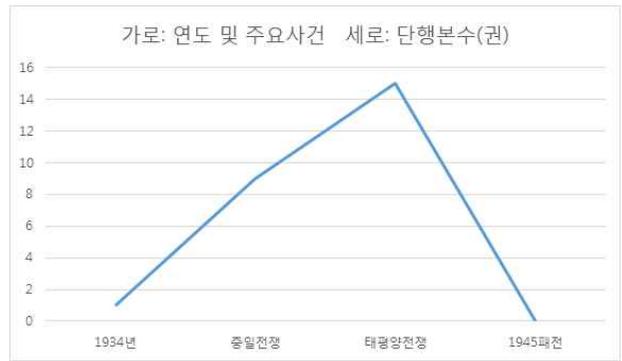
6) 田中彰(1973) 「吉田松陰像の変遷」 中央公論新社、p.23.

7) 田中彰(2014) 前掲書、p.58.

<참고 표1> 쇼인 관련 단행본 발행수(1889-1999)

연도	기간	단행본수	평균 발행수
1889-1912(명치22-45)	24년	10권	0.4
1913-1926(대정2-15)	14년	12권	0.9
1927-1945(소화2-20)	19년	102권	5.4
1946-1999(소화21-평성11)	54년	76권	1.4

<참고 표2>8) 전시 중 쇼인 관련 단행본수의 변화



위의 표는 시대사조와 쇼인상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1913년에서 26년까지, 대정시대에는 연평균 0.9권의 책이 출판되는데 비해, 1927년에서 45년까지 소화 전반기에는 평균 5권이 발행되고 있다. 특히 중일전쟁이 발발했던 1937년 한 해에만 9권의 책이 발간되었음은 시사적이다. 1941년에서 45년까지의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한 해 15권(1941년), 17권(1942년)으로 피크에 도달한다. 그리고 일본의 패전 징후가 짙어지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1943년에는 13권, 44년에는 4권으로 급감하다가 45년 일본 패전의 해에는 바닥을 치게 된다.

그럼 쇼인 관련 문헌 발행이 정점에 달했던 전시 중에 출판된 문헌에 나타나는 쇼인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8) 田中彰(2014) 前掲書, p.58.

### 3. 쇼인의 ‘대륙·남진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시기에 쇼인 관련 단행본 발행수가 최고점을 찍고 있다. 여기엔 군국주의자 쇼인상이 전쟁 수행을 위한 사상적 동인(動因)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42년에 간행된 후쿠모토 기료(福本義亮)의 『吉田松陰大陸·南進論』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조선과의 국제적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며 이 시대의 전형적인 쇼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출판물이다.

저자인 후쿠모토 기료(福本義亮)는 쇼인과 동향, 지금의 하기사 출신으로 고베의 실업계에서 활약한 기업인이다. 특히 동향 선배인 요시다 쇼인에 대한 존경과 추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여서 사재를 털어 쇼인의 관계 사료를 수집해 쇼인에 관한 저술과 강연 활동을 했다. 전쟁전 재야의 쇼인 연구자 중의 제일인자이며 쇼인에 관한 연구사는 후쿠모토의 업적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일컬어질 정도이다.

후쿠모토가 태평양전쟁이 한창일 때 저술한 『吉田松陰大陸·南進論』은 아직 구체적인 연구사나 관련 논문이 없으므로 여기서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후쿠모토는 서론에서 이 책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쇼인 선생은 오랑캐의 정세를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오랑캐를 다룰 수 있겠는가 하면서 결연히 해외로 도항해 단신으로 적지에 들어가 오랑캐의 정세를 탐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작금의 대동아공영권에 더욱 가세하여, 인도·아프리카·호주로 일본이 진출해야 하며 이러한 국책 완수를 위해 장래 가공할만한 적국은 미국·러시아라고 단언할 수 있고, 한시라도 빨리 고도 국방 국가를 만들라고 외친다. 이러한 쇼인의 대륙·남진론이 곧 이 책이다.<sup>9)</sup>

9) 福本義亮(1942) 『吉田松陰大陸·南進論』誠文堂新光社版、pp.1-17.

이 책이 저술되기 시작됐던 1941년 9월은 미일교섭의 교착으로 일본은 어전회의에서 미일교섭에서 일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미국, 영국과 개전을 결의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던 시기였다. 당시 미국은 일본의 남진정책에 높은 경계심을 품고 있었고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미일교섭을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침략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현재 전쟁이 파시즘에 대한 민주주의 방위전쟁임을 선언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서 쇼인은 막말 우국지사의 대표적 인물로 결연히 단신으로 해외 적지로 나가 오랑캐를 탐사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획득을 위한 대륙 남진정책에 활용하기 가장 적합한 위인으로 상정한 것이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요시다 쇼인=대륙·남진정책’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후쿠모토 기료는 쇼인을 ‘해외 영토 확장론’의 주창자로 설정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쇼인 선생의 대륙·남진론도 이것을 단적으로 요약하면, 우리 조국(일본)의 대정신인 일본제국 부동불역의 국시국책으로 일본·한국·만주·중국이 일심일체가 되어 그 총력을 기울여 남양·인도·아프리카·호주에 이르는, 소위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이었다. (중략) 쇼인 선생도 “잘했다”고 하며 구천(九泉) 아래, 미소를 띠며 우리 조국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있을 것이다.(同書)

쇼인의 ‘대륙·남진론’은 요약하면 바로 일본의 건국정신에 해당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국시국책이며 그것은 바로 일본·한국·만주·중국이 일심일체가 되어 남양만과 인도, 아프리카, 호주에 이르는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이었다. 특히 에도 막부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제국주의 열강이 일본 근해에 출현해 문호개방을 요구했던 때에 쇼인이 주장했던 대외 정치론과 외교정책에 1942년 당시를 오버랩 시키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19세기 초 30여 년의 격동의 생애로 그의 삶은 종지부를 찍었지

만 쇼인의 해외 확장론은 20세기 초 재차 가공할 만한 영향력을 갖고 재생산되고 되고 있었다.

쇼인 선생은 이 세계의 황도인의화(皇道仁義化)라는 건국정신의 첫 번째 식목장소를 소위 대륙·남진에 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일본인의 성혈로 삼아 이를 우리 민족의 웅략사(雄略史)에서 찾고 있다.(同書)

쇼인의 존황양이 사상은 일본의 건국정신이며 쇼인 사상의 첫 걸음은 바로 대륙·남진정책이었다고 해석한다. 여기서 말하는 ‘웅략론’이란 구체적으로는 쇼인의 ‘해외웅비론’을 연상시킨다. 국제정세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해외에 진출한다는 발상인데 쇼인이 말하는 해외라는 것은 주로 조선과 홋카이도, 만주, 연해주 등이었다. 여기서의 ‘대륙’이란 바로 아시아 전체를 가리키며 아시아 지배를 위한 제일보는 바로 ‘조선’이었다. 쇼인이 구상했던 ‘대륙’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지, 『유수록』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

태양은 떠올랐다가 반드시 지며, 달은 차면 반드시 기우는 것처럼 국가 또한 번영했다가 쇠락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얻어 늘릴 필요가 있다. 지금 서둘러 무기를 정비하고 함선과 총포의 계략을 세우고 에조지를 개간하여 다이묘를 봉하고 틈을 봐서 캄차카, 오츠크를 탈취하고 류큐도 타이러 내지의 제후와 마찬가지로 참근시키고 회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조선을 옛날과 마찬가지로 공납하도록 촉구하고 북으로는 만주의 땅을 분할하여 빼앗고 남으로는 타이완, 필리핀의 여러 섬을 우리 수중에 넣어 점차 진취의 기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sup>10)</sup>

『유수록』에서 쇼인은 북으로는 에조지의 홋카이도와 캄차카, 오츠크 등의 북방지역과 남으로는 류큐의 오키나와, 그리고 조선과

10) 吉田松陰(1973) 『幽囚録』『日本の名著31 吉田松陰』中央公論社、pp.3-4.

만주, 대만 등의 해양지역까지 진출과 침략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구미 열강에게 빼앗긴 부분을 그만큼 다시 해외에서 되찾으려는 의지의 표명이었으며 해외에서 빼앗으려는 것은 해외 영토, 바로 홋카이도의 개척, 오키나와의 일본 영토화, 조선의 일본으로의 귀속, 만주·대만·필리핀의 영유로 나타났다.

쇼인은 당시 서양 열강이 일본을 병합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쇼인은 이러한 긴박한 국제정세 하에서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타국, 타자의 탈취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러시아의 캄차카와 오츠크, 호주, 조선과 만주 등이 그 대상이었고 홋카이도의 개척은 캄차카와 오츠크 진출을 위한 전선기지 확보이며 호주 진출은 당시 영국을 의식한 것이었고 특히 조선의 진출은 과거 조선을 지배했다는 잘못된 역사관, 바로 ‘조선 번국관’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즉 조선은 고대 일본의 신공왕후가 신라를 정벌해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었으며 다시 한 번 조선을 침략해 인질을 보내게 하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조공을 바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선을 발판으로 만주로 진출할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한론의 역사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쇼인의 해외옹비론은 조선의 정한론을 근거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후 후쿠모토가 저서에서 말하는 대동아공영권으로 계승되는 것이다.

한편, 후쿠모토는 저서에서 ‘竹島(鬱陵島)開拓問題と桂小五郎<sup>11)</sup>’라는 제목의 장(章)을 할애하고 있는데, 쇼인의 대륙·남진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쇼인이 가츠라에게 보낸 울릉도 개척론에 관해해설하고 있다. 후쿠모토는 쇼인의 울릉도 개척론에 대해 ‘기책묘안이며 서둘러 완수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대동아전쟁에서 육·해·공·병점 등의 기지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쇼인선생은 조선과 만주로의 진전 기지를 바로 이 울릉도로 여기고 있었으며 이것이야말로 흥미로운 주장이라고 언급한다. 나아가 ‘이러한 울릉도 개척운동은 쇼인 선생의 선구적 웅략국책이며 쇼인의 동지들이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이의 실현을 위해 매진해 국가의 위난을 극복해 갔다’고 칭송하고 있다.

11) 福木義亮(1942) 前掲書, pp.369-377.

후쿠모토가 지적한 것처럼, 쇼인의 근대조선에 대한 인식은 바로 울릉도 개척론으로 연결되며 이것은 조선침략과 아시아지배로 이어지는 대동아공영권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4. 근대 조선에 있어서의 쇼인상

근대 조선과 쇼인과의 관계성을 살펴볼 때, 요시노 마코토(吉野誠)의 연구는 시사적이다. 요시노는 막말 유신기의 조선에 대한 침략사상으로서의 정한론에 주목해 조선침략자·정한론자로서의 쇼인상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는 쇼인과 조선과의 관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쇼인의 조선에 관한 발언은 ... 외압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된 근린 아시아지역에 대한 침략책은 국채론·존왕론에 의해 이념화되어 부국강병에 기반한 전략구상으로 완성되었는데 이러한 구상 아래 조선 침략론은 일관되게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 쇼인의 정한사상은 존왕양이파의 발언으로 계승된다.<sup>12)</sup>

요시노는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조선 지배론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제국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으로 쇼인의 조선에 대한 발언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리고 쇼인의 정한사상은 이후 쇼카손주쿠의 제자들로 계승되어 존왕양이파의 주장으로 고착화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의 정한사상은 이후 대동아공영론(大東亞共榮論)으로 계승되어 일본 제국주의 팽창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1857년 쇼카손주쿠(松下村塾)를 열고 1859년 처형당할 때까지 2년 남짓 되는 교육을 통해 다카스기 신사쿠·구사카 겐즈이·이토 히로부미 등 뒷날 메이지유신의 주역이 된 지도자들을 배출해냄으로써 그의 해외

12) 吉野彰(2002)「吉田松陰と朝鮮」『明治維新と征韓論-吉田松陰から西郷隆盛へ』大和書房、pp.69-70.

영토 확장론은 구체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럼 구체적으로 조선 침략에 대한 쇼인의 사고를 분석하기 위해 그가 쇼카손주쿠 제자들과 주고받은 ‘울릉도 개척’에 관한 서간을 살펴본다. 쇼인은 울릉도 개척에 관한 편지를 가츠라 고고로(기도 다카요시)에게 2통, 구사카 겐즈이에게 2통, 총 4통을 보내고 있다. 그의 서간문은 난해한 일본어로 되어 있으므로 우선 한국어로 번역하고 거기에 내포된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4.1. 쇼인과 가츠라의 서간문에 나타난 울릉도 분석(1)

쇼인은 울릉도를 서간문에서는 ‘죽도(竹島, 다케시마)’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현재의 울릉도(경상북도 소속)를 말한다. 당시 독도(한국령,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 칭함)는 마츠시마(松島)라고 불렸다. 일본 측이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영토편입 이후이며 그 이전에는 울릉도를 죽도(竹島) 혹은 기죽도(磯竹島)라고 불렀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하는 죽도는 현재의 울릉도를 가리킨다.<sup>13)</sup>

초슈번 하기시의 쇼카손주쿠(松下村塾)에서 울릉도(竹島) 문제가 부상한 것은 미일수호통상조약 체결 직전인 안세5년(1858)이었다.<sup>14)</sup>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요시다 쇼인이 있었다. 쇼인은 조선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침략과 복속을 주장했다. 조선 침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죽도(竹島)의 정벌, 즉 울릉도 점령이었다.

쇼인은 1858년 2월 19일자로 에도에 있는 가쓰라 고고로(桂小五郎)에게 서간을 보내 울릉도 개척론을 거론하는데, 당시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홋카이도와 같은 울릉도 개척이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조후번(長府藩)의 울릉도 개척론자였던 고젠 쇼조(興繕昌藏)의 ‘竹島(울릉도)개척론’을 소개하고 있다.<sup>15)</sup>

13)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현재의 이름인 ‘울릉도’를 사용하지만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사료상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14) 岸本覚(1998) 『幕末海防論と「境界」意識』、『江戸の思想』ペリカン社, pp.58-72.

15) 주석14의 논문에서 岸本覚 씨는 쇼인의 죽도개척론에 관해 시사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1> 구사카 겐즈이(久坂玄瑞)가 에도로 향하고 있다. 내 동지이므로 자네(桂小五郎)에게 어떤 상담이든 하라고 말해 놓았다. 그런데 막부의 사정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초슈번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자세한 것은 구사카가 알고 있으니 생략하겠다. 각로(閣老) 미즈노(水野)·가와지(河路) 등 유명한 분들의 지론은 어떤 것인가. 내 생각에는 육십육국 일본 전체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조후인으로 興繕昌藏라고 하는 자가 있다. 울릉도 개간책이 있다. 이것에 대해 막부의 허락을 얻어 에조[蝦夷](홋카이도)처럼 된다면 옛날 明末의 鄭成功의 업적과 같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튼 지금은 幕吏變通<sup>16)</sup>의 義와 興利의 說을 서두른다면 울릉도 개척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勘定所<sup>17)</sup>의 주장이므로 실행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사카가 알고 있으니 고려해주시게. 천하가 무사하다면 막부에 一利가 될 것이고, 일이 생기면 우리 번이 조선, 만주에 진출하는 것이 제일 좋다. 조선, 만주에 진출하려고 하면 울릉도는 제일의 근거지가 될 것이다. 멀리 보고 가까운 것을 도모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하나의 묘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桂小五郎宛, 安政5(1858)년 2월 19일

울릉도에 대한 건은 후쿠하라 세스케도 같은 의견이다. 이곳의 상황은 쓰기 어려우니 상세한 것은 구사카에게 듣기를 바란다.<sup>18)</sup>

당시 에도막부의 상황은 구로후네(黒船) 사건으로 인해 1854년 미일화친조약을 체결하고 쇼인의 서간이 왕래한 당해 년(1858)에는 미일수호통상조약이라는 일본에게 있어서는 불평등조약이 체결되던 시기였다. 당시 쇼인은 중국 청이 아편전쟁의 패배로 인해 영국에게 홍콩을 할양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된 상황에 위기의식을 품고 있었고 일본 또한 서양 열강의 침략의 목표가 될 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점차 일본에 대한 서양의 간섭

16) 자유자재로 변화해 사태에 적응해 간다는 의미.

17) 에도막부에서 재정과 민정을 담당하는 관청, 지배기구.

18) 吉田常吉校注(1978) 『吉田松陰: 日本思想大系54』、岩波書店、p.224. 이하 번역은 필자에 의함.

이 본격화되고 에도막부의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지며 막부 타도운동(존왕양이운동)으로 연결되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할 묘책으로 쇼인은 ‘울릉도 개간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쇼인은 자칫 잘못하면 울릉도가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가 영국군의 해군기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전에 일본이 개척을 서둘러야 하는데, 초슈번은 조선-만주에 진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며 울릉도는 그 최전선에 있다고 주장한다. 쇼인은 야가가류의 병학자였으며 군사력의 행사, 방위구상이라는 관점에서 울릉도 개간책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방위는 조선, 만주로 진출하는 것이었으며 그 제일보는 울릉도라고 상정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침략의식, 지배야욕으로 해석되며 쇼인의 영토의식, 국경의식을 엿볼 수 있는 주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쇼인이 ‘죽도 개척론’을 주장한 인물로 소개한 고젠 쇼조(興繕昌藏, ?-1863)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조후번의 의사로 울릉도를 개척해 영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sup>19)</sup> 죽도개간을 최초로 주장한 난학 의사로 에도시대 초기 나가사키 거상이었던 興膳竜三郎의 차남으로 태어난다. 아버지가 시볼트에게 사사를 받아 서양의학을 배우고 형 楨平와 함께 쇼조도 서양의학을 배운다. 이후 조후번(長府藩)에서 의술을 인정받아 典医로 일하는데 울릉도 개간안(竹島開墾案)을 건백해 요시다 쇼인도 이를 지지한다. 이후 고젠 쇼조는 정박 중이던 영국 배에 조슈의 번사 후쿠하라 세스케(福原清介)와 함께 접근하다가 이를 내통으로 오인한 자들에 의해 암살당하게 된다.<sup>20)</sup> 후쿠하라 세스케와 접점이 있던 사실로 보아 후쿠하라를 통해 요시다 쇼인에게 정보가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울릉도를 시찰한 경험도 있었다.

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쇼인은 고젠 쇼조의 울릉도 정벌론을 인용하고 있다. 조선과 만주를 침략하

19) 吉田常吉校注(1978) 前掲書、p.224.

20) 高杉晋作と幕末志士 <http://sinsaku.access21-co.jp/11cyousyu-cyoufu.html> (検索日: 2018.10.16)

기 위해서는 울릉도가 최대의 근거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대륙진출의 첫 번째 발판이 울릉도이며 홋카이도의 아이누민족처럼 일본이 장악하여 조선, 만주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울릉도를 홋카이도처럼 편입한다면 명나라 말기의 정성공의 업적과 같이 칭송받을 것이라 기술한다. 정성공은 당시 네델란드 식민지였던 대만에 한족 왕국을 세움으로써 대만을 중국 영토로 만든 영웅이다.

쇼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초슈번이 울릉도와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정벌하기 손쉬울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쇼인은 열흘 정도 후에 에도 여행 중인 구사카 겐즈이(久坂玄瑞)에게 서간을 보내 다시 한 번 울릉도 개간책을 언급하는데 막부에 상소해 반드시 울릉도 개척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2> (上略)울릉도 건은 공공연히 막부에 상소해야만 한다.

松洞도 같은 의견이다.

坂玄瑞宛, 安政5(1858)년 2월 28일<sup>21)</sup>

松洞란 松浦龜太郎를 말하는데 동향 하기 출신으로 안세이3년 쇼인에게 사사를 받아 존왕애국의 뜻을 품게 된 인물이다. 안세이 5년에는 교토와 에도에서 유학(遊學) 하고 쇼인 사후에는 존왕양이 운동에 전력을 다한다.<sup>22)</sup>

쇼인은 쇼카손주크라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울릉도 개간책을 공유하고 있었다. 비단 이것은 쇼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초슈번의 번사들, 특히 쇼인이 세운 학당 쇼카손주크를 통해 재생, 확산되고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쇼인은 같은 해(1858년) 6월 28일, 에도에 있는 구사카 겐즈이(久坂玄瑞)에게 보낸 서간에서도 울릉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1) 吉田常吉校注(1978) 前掲書、p.223.

22) 吉田常吉校注(1978) 前掲書、p.278.

<3> 울릉도가 영국 오랑캐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興繕昌藏가 얼마 전 福原清介에게 와서 말했다. 北国船(메이지초기까지 북방지역을 돌던 일본의 대형 회선<sup>23)</sup>)이 매일 왕복하면서 그 전후를 지나다니고 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다. 영국 오랑캐가 이미 (울릉도를)점거했다고 하더라도 개의 치 말고 역시 개간을 명분으로 교역을 하고 외국 오랑캐의 풍설을 듣는 것이 가장 좋다. 만일 영국 오랑캐가 이미 점거했다면 특히 그대로 두기 어렵다. 그러지 않다면 언제 長門(야마구치현 북부의 동해에 면한 나가토시)에 내습할지 예측할 수 없다. 해외도항금지의 누습을 깨는 데는 이만한 묘책은 없을 것이다. 흑룡강이나 홋카이도는 우리 편에서 멀고 아득하니, 그보다는 울릉도, 조선, 북경이야말로 우리 편의 급무라고 생각된다.

久坂玄瑞宛, 安政5(1858)년 6월 28일 <sup>24)</sup>

별지) 울릉도 건은 가쓰라와 상의해 주게. (중략) 영국이 전쟁의 실마리를 열어주면 좋은 일이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국외로 나가지 않으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해군을 움직이는 것은 어리석은 논리다. 해군이 움직이면 저쪽도 방비를 할 것이고 상선이 가면 저쪽도 상업을 할 것이다.

요시다 쇼인은 울릉도가 서구 열강에게 점령당할 것을 두려워했다. 당시 영국이 울릉도를 점령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건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이며 행어나 영국이 이미 울릉도를 점령했다면 울릉도를 통해 조슈번의 나가토로 습격해 일본에 침략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해외도항금지'의 낡은 제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울릉도를 일본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묘책이라고 역설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우려해 흑룡강이나 홋카이도를 점령하는 정책보다는 조슈번에 근접한 울릉도와 조선, 북경을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시 울릉도 개간책을 최초로 주장한 고젠 쇼조가 거론되고 후쿠하라 세이스케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후쿠하라 세스케(福原

23) 이하 괄호 안 설명은 필자에 의함.

24) 吉田常吉校注(1978) 前掲書、p.235.

清介, 1827-1913)는 쇼인과 동향의 야마구치현 하기(萩)의 번사출신이다. 나가사키에서 서양 병학을 배우고 선박의 건조, 외국 선박의 구매를 담당했다. 메이지 원년에는 화양원(기가이마루, 華陽丸)<sup>25)</sup> 선장으로 하코다테를 회항했다.<sup>26)</sup>

후쿠하라 세스케와 고젠 쇼조는 교류가 있었으며 쇼인은 후쿠하라를 통해 울릉도 개척론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젠, 후쿠하라, 쇼인 이들 3인의 이력을 살펴보면, 당시 이들은 울릉도 침략을 허울 좋은 ‘개간’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군사적 목적, 즉 영유(領有)의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쇼카손주크를 비롯한 번사들의 집단을 중심으로 공유·확산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에도막부는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물론 독도(당시 마쓰시마(松島)라 불림) 또한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전의 울릉도의 상황을 살펴보면, 1693년 안용복일행이 돛토리번에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돛토리에서는 조선인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시켜달라고 막부에 요청한다. 이때 막부는 쓰시마번에 명령해 조선과 교섭을 시켜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이라고 불리는 울릉도 영토 교섭을 행하나 그 결과 1696년에 울릉도를 일본 영토 외, 즉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했다.

그리고 막부는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간주해 그 취지를 쓰시마번을 통해서 조선에 전달하고 이것으로 ‘다케시마 일건’은 일단락되었다. 이때 막부와 돛토리번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 외’, 즉 조선의 영토로 확인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쇼인을 비롯한 번사들도 이러한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된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인은 울릉도의 개척과 지배를 공공연히 주장했던

25) 막말 조슈번이 보유했던 서양식 군함. 시모노세키전투에서 미국 해군과 교전해 대파 당했다. 양이를 주장하며 군비증강을 추진하던 조슈번이 영국으로부터 구입함.

26) 福原清介 <https://kotobank.jp/word/%E7%A6%8F%E5%8E%9F%E6%B8%85%E4%BB%8B-1104967>(檢索日:2018.10.15)

것이다. 존왕양이파로 급진적 대륙 팽창주의를 주장하던 요시다 쇼인에게 무엇보다 울릉도는 대륙진출의 교두보로 절실했던 것이다.

#### 4.2. 쇼인의 서간문에 나타난 울릉도 분석(2)

쇼인은 이미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이며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울릉도를 침략해 일본의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의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4> 울릉도론(竹島論)은 元祿 연간에 조선에 인도했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대번혁의 때이므로 조선에 교섭하여 지금 공도(空島)로 놔두는 것은 무익하므로 지금부터 개방하겠다고 말하면 이론(異論)은 없을 것이다. 만약 서양 오랑캐(洋夷)들이 다시 손을 쓴다면 이 또한 그냥 둘 수 없다. 울릉도가 그들의 근거지가 된다면 우리 조슈번에는 대단한 난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울릉도가 서양 오랑캐들의 소유가 되었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개척을 명분으로 도해(渡海)한다면 이것은 항해웅략(航海雄略)의 단초가 될 것이다. 에조에 관한 일은 여러 가지로 논의해 보겠지만 막부 안에서 그 정도의 의지는 없다. 탄식만 나올 뿐이다.

桂小五郎宛, 安政5(1858)년 7월 11일<sup>27)</sup>

먼저, 밑줄 친 부분의 '울릉도를 원록 연간에 조선에 인도한 일'이란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원록 연간에는 안용복의 1차 납치(1693년, 원록 6년)와 2차 도해(1696년, 원록 9년)가 있었다. <숙종실록>은 안용복의 도해로 인해 울릉도(죽도)와 우산도(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하는 막부 관백(閔白)의 서계가 존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05년에 새롭게 발견된 원록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覚書』)<sup>28)</sup>는 <숙종실록>의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본 측

27) 吉田常吉校注(1978) 前掲書、p.238.

28) 원록각서에 대해서는 김화경과 권오엽 등의 선행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김화경

사료이다. 이 사료는 안용복이 1696년(원록 9년)에 오키국에 도착했을 때의 취조기록으로 시마네현 오키군 아마초의 무라카미 가문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돛토리번으로 도해하다 표착한 안용복 일행이 진술한 내용을 일본 측이 관찰하여 기록한 것이다. 일본 관리에게 안용복은 <조선팔도지도>를 보여주며 울릉도와 자산도가 일본이 말하는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리는 그것을 일본어로 기록하고 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sup>29)</sup>

쇼인은 이미 원록시대에 울릉도가 조선에 인도되었으며 이후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하는 에도막부로부터의 금지령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이러한 사실은 지역(번)의 번주나 번사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쇼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울릉도 개척을 명분으로 한 아시아 침략론, 조선으로의 영토 팽창을 위해 울릉도 지배를 꿈꾸고 있었다.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에서 언급된 ‘항해웅략(航海雄略)’은 쇼인의 웅략론(雄略論)에서 비롯되었다. ‘웅략론=웅비론’이란 일종의 해외로의 영토 확장론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아시아제국의 군사적 침략과 군사적 팽창론을 일컫는다. 이러한 쇼인의 군사 팽창론은 1858년 이후에는 허울 좋은 ‘개척’을 명분으로 한 교역, ‘항해웅략(航海雄略)’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쇼인이 서술한 ‘개척을 명분으로 도해한다면’의 내포된 의미는 개척론이 아닌 침략론 그 자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해상무역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걸고 쇼인은 아시아제국으로의 군사적 침략을 의도하고 있었다.

물론 이때 쇼인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현재의 독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쇼인은 7월 11일자 서간의 <별지>에서 현재의 독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울릉도뿐만 아니라 현재의 독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쇼인의 울릉도 및 독도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다음에 잘 나타나 있다.

(2005) 「겐로쿠 9(병자)년 조선 배 착안 한 권의 각서」 『독도연구』 창간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301 ; 권오엽(2008)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覚書』와 安龍福 『일본어문학』 제39집, 일본어문학회, p.412 이하 참조.

29) 박병섭·나이토세이추 저·호사카 유지 역(2008) 『독도=다케시마 논쟁』 보고사, p.285.

<5> (별지) 울릉도와 오사카지마(大坂島<sup>30</sup>), 독도를 포함해 이를 울릉도라고 하는데 25리 정도이다. 울릉도는 18리 정도로 세 섬 모두 인가가 없다. 오사카지마에는 대신궁의 소사(小祀)가 있다. 이즈모(시마네현 동부)에서 해로는 120리 정도이다. 해산물과 장어류(전복류)의 좋은 채료들이 많고 개간하면 양전미지(良田美地)도 가능할 것이다. 이 섬은 에조(홋카이도)의 사례처럼 개간한다고 아래에서 주장해 상소를 올리고 항해해야 할 것이다.

桂小五郎宛 별지, 安政5(1858)년 7월 11일<sup>31</sup>

위의 가쓰라에게 보낸 서간에서 쇼인은 울릉도와 오사카지마, 독도, 이 세 섬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오사카지마에 대해서는 어떤 섬인지 알 수 없지만 쇼인은 ‘울릉도와 오사카지마, 독도를 포함해 울릉도라고 한다’고 서술한다. 이들의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 수산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상당히 폭넓게 정보를 접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쇼인이 구체적으로 울릉도를 시찰하거나 탐방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아마 당시 번사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교류를 통해 울릉도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제공되었을 것이다.<sup>32)</sup>

## 5. 쇼인 사후의 울릉도론(竹島論)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쇼인의 ‘울릉도론(竹島論)’은 당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울릉

30) 吉田常吉校注(1978) 前掲書、p.239. 주석에 의하면 ‘관음도 혹은 大坂浦의 혼동인가?’라고 서술해 미상임을 밝히고 있다.

31) 吉田常吉校注(1978) 前掲書、p.239.

竹島・大坂島・松島合せて世に是を竹島と云、二十五里に流れ居候。竹島計り十八里有之。三島共人家無之候。大坂島に大神宮の小祀有之。出雲地より海路百二十里計。産物蛇魚類良材多く有之、開墾致候上は良田美地も出来可申。此島蝦夷の例を以て開墾被仰付、下より願出航海仕候もの可有之候。

32) 岸本覚(1998) 前掲書、pp.58-72.

도를 대륙침략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했던 그의 명백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이며 문하생으로 서간을 주고받았던 가쓰라 고고로와 구사카 겐즈이 등에게 직접적으로 계승되고 있었다.

쇼인의 사후 1년, 1860년 7월 2일에 가쓰라 고고로는 무라타 조로쿠와 함께 막부에 ‘죽도개척건언서초안(竹島開拓建言書草案)’을 제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 초안은 막부의 각로(閣老) 구세 히로치카(久世広周)에게 제출되면서 번주의 건백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sup>33)</sup> 건백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鬱陵島開拓に対する建言書草案「閣老宛」万延元年(1860)/七月二日<sup>34)</sup>

나가토(長門)국, 하기(萩)에서 동북 방향으로 울릉도(竹島)가 있습니다. 약 오십 리 정도인데 울릉도에서 조선까지 오십 리 거리라 일본과 조선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북국(北國) 부근은 개항통상 조약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미 이국(異國)의 배가 울릉도에 왕래하고 있기 때문에 식민(植民)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국법에 의해 울릉도 연안을 향해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는데 북국에서 시모노세키(下関)로 가는 상선도 폭풍이나 해일 때문에 울릉도 부근에 정박해 일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렸다가 출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래 일본인이라 칭하는 인가(人家) 대여섯 채가 지어졌다는 정보도 있고 진위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한 풍문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울릉도 건(竹島の件)은 조선에 넘겼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섬 안에 인적도 없고 조선인도 도해(渡海)하지 않는다고 이전에 상소와 바와 같습니다.

북국 상선은 때때로 풍파 때문에 울릉도 부근에 정박합니다. 조선에 속하지 않는 증거는 만국지도(万国地圖)를 열람해도 일본 착색(着色)으로 이름은 <다케에이·라라도(タケエイ・ララド)>이며 실로 색채며 이름이며 일본의 속국임은 분명합니다. 만일 외국이 손을 내밀어 식민지화한다면 일본이나 초슈(長州)

33) 池内敏(2005) 「近世から近代に到る竹島(鬱陵島)認識について」『日本海域歴史大系 第四卷 近世編1』清文堂、p.61.

34) 吉田常吉校注(1978) 前掲書、pp.245-146. 번역은 필자에 의한다.

와도 가깝기 때문에 뒤에 성가신 일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근해방위, 밀무역 금지를 목적으로 松平大膳太夫(毛利敬親)도 전력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죽도개척의 건 또한 에조(홋카이도) 개척과 동일한 취지로 허가를 내려주기를 청원합니다. 개척의 건, 大膳太夫에게 일임해 주신다면 그의 부하 일동도 일심 단결해, 국가를 위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라타 조로쿠(村田藏六<sup>35</sup>)

가츠라 고고로(桂小五郎)

가츠라 고고로는 이후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1833-1877)로 개명하는데, 위의 서간문 왕래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쇼인이 울릉도 개척론을 막부에 건언하도록 여러 번 의뢰했던 쇼카손주쿠의 중심인물이었다. 유신 후에는 총재국 고문전임으로서 문명개화를 추진하는 한편, 판적봉환·폐번치현 등 봉건적 제도의 해체에 힘써, 조슈 번주 모리 다카치카(毛利敬親)나 메이지 천황으로부터 두텁게 신뢰받았다.

최초 요시다 쇼인의 울릉도 개척론에 대한 서간이 가츠라에게 도착한 것은 1858년 2월 19일이므로 에도막부에 이러한 건언서가 제출된 万延元(1860)년 7월 2일까지 약 2년 여의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건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츠라 일행이 막부에 울릉도 개척론을 제출하기에 이른 이유는 서양 열강들의 조선 식민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서구 열강을 ‘서양 오랑캐’라고 표현했던 쇼인의 인식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서 쇼인의 서간문에서 ‘영국이 울릉도를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시대적 위기의식과 유사한 맥락이다. 두 번째 이유는 섬 안에 조선인이 거주하는 흔적도 없고 일본인이 몇 건너갔다는 풍문이 들리니 이를 계기로 일본이 개척을 명분으로 건너가도 될 것이란 억지 해석이다. 이미 앞의 서간에서 밝힌 것처럼, 원록 연간의 다케시마 일건에 의해 울릉도는 조선령

35) 오무라 마사지로(大村益次郎, 1824-1869)와 동일인물. 초슈번의 의사이며 양학자, 병학자. 병부성 초대 차관을 지냈으며 실질적인 일본육군의 창시자이며 육군건설의 시조라 불린다.

임을 에도 막부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황당무계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건언서의 울릉도 개척론의 근거 제시는 쇼인이 가츠라, 구사카에게 제시한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결국 쇼인의 울릉도 침략론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 구체화·실행화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세 번째 이유로 <만국지도(万国地図)>를 거론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만국지도’란 명칭과 완전히 일치한 지도는 동시대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sup>36)</sup>

쇼인의 사후 10년 후인 1869년, 명치 정부는 최초로 외무성관리를 조선에 파견해 시찰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데 이때 조선에 파견된 사다 하쿠보 일행은 조선에 당장 군대를 파견해 정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급진적 정한론자였다.

조선은 오진 천황 이래, 조공의 의무가 있는 나라이므로 유신 세력을 이용하여 빠르게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sup>37)</sup>

조선은 방어할 줄은 알지만 공격함을 모른다. 자기 자신을 알고 타인을 모른다. 그들의 성격은 우울하고 교활하며 고루하고 오만하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극해도 자극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연 병력으로써 여기에 입하지 않으면 우리의 용무를 다할 수 없다. 하물며 조선이 황국을 멸시하여 문자가 불손하다고 하며 치욕을 황국에 주었다. 임금이 치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는다. 실로 하늘을 받들 수 없는 치욕이다. 반드시 이를 벌해야 하며 벌하지 않으면 황위가 바로서지 않는다.<sup>38)</sup>

36) 만일 이 지도가 1602년 마테오리치와 명나라 학자 이지조(李之藻)가 제작한 『곤여만국전도』(坤輿万国全圖)라고 가정해 보아도 ‘곤여만국전도’에는 <다케에이·라라도(タケエイ・ララド)>와 같은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곤여만국전도』는 인쇄를 통해 보급되었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에도 광범위하게 전해져 있었다. 한편, 건언서의 ‘만국지도’와 시기적으로 가까운 1810년, 다카하시 가케야스(高橋景保)가 제작한 『신정만국전도(新訂万国全圖)』라고 가정해 보아도 이 지도에서도 울릉도나 독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당시 서구열강을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등은 식민지화를 위한 수많은 세계지도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그 종류만 해도 수만 종에 이른다. 따라서 지명 관계상 <다케에이·라라도(タケエイ・ララド)>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논고로 미루기로 한다.

37) 佐田白茅(1904) 『征韓論の旧夢談』 明治文化全集 雑史篇、p.43.

38) 佐田白茅(1875) 『征韓評論』 東京：忠芬義芳楼、p.15.

사다 하쿠보는 위와 같은 정한건백서(征韓建白書)를 메이지정부에 2회에 걸쳐 제출하기에 이른다. 사다는 조선시찰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상당히 격렬하게 세 번째 정한론을 주장했는데 미국이나 러시아도 조선에 야심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취하지 않으면 타국의 것이 된다고 30대대를 파견해 조선의 국왕을 포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선출병론’을 역설했다.<sup>39)</sup>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들은 막부말 요시다 쇼인의 쇼카손주쿠를 통한 비롯한 아시아 침략론과 군사 지배론을 계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왕성하게 일어났던 신공왕후 전설의 확대·재생산 현상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정벌론으로, 그리고 막부말 요시다 쇼인의 쇼카손주쿠를 통한 비롯한 정한론자들 양성으로 정점을 치달았다.<sup>40)</sup>

또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울릉도에 관한 이들의 인식이었다. 이들은 울릉도를 시찰한 후, ‘죽도 마쓰시마는 조선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다’고 기록한다. 즉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령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당시 지방의 번들과 번주, 번사들 또한 모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막부말기와 메이지정부 초기, 요시다 쇼인을 비롯한 강경 정한론자나 대륙 팽창주의사상에 심취해 있었던 인사들 사이에도 이러한 사실은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

## 6. 결론

요시다 쇼인에서 출발해 쇼카손주쿠를 통해 재생산·확대된 ‘울릉도론’은 이후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되었던 인물들에 의해 구체화되고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 그들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령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륙 팽창주의사상에 심취해 울릉도를 일본영토로 만들려는 침략야욕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허울

39) 김영(2017) 「일본문화론 속의 ‘독도’ 읽기」 『동아인문학』41호, 동아인문학회, pp. 209-229.

40) 김영(2017) 앞의 논문, pp.209-229.

좋은 ‘개척론’이라는 명분하에 숨겨진 ‘침략론’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곽연우(2013) 「日本幕末の指導者像-吉田松陰の天皇觀と孟子-」『퇴계학논집』12권, 영남퇴계학회, pp.265-284.
- 권오엽(2008)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覚書』와 安龍福」『日本語文學』제39집, 일본어문학회, p.412.
- 金光男(2012) 「幕末の朝鮮觀に関する一考察-吉田松陰を中心として」『茨城大学人文学紀要 社会科学論集』54, 茨城大学人文学部, pp.29-47.
- 김영(2017) 「일본문화론 속의 ‘독도’ 읽기」『동아인문학』41호, 동아인문학회, pp.209-229.
- 김화경(2005) 「겐로쿠 9(병자)년 조선 배 착안 한 권의 각서 해설」『독도연구』1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301.
- 이태진(2014) 「요시다 쇼인(吉田松陰)과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근대 일본 한국 침략의 사상적 기저(基底)-」『한국사론』60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pp.551-601.
- 박명섭·나이토세이추지(2008) 『독도=다케시마 논쟁』 보고서, p.285.
-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pp.156-164.
- 호사카 유지(2007) 「길전송음(吉田松陰) 사상의 근대적 전개 서설-청일전쟁 직전까지의 일본군 정비과정과 첩보활동 고찰-」『한일군사문화연구』5집, 한일군사문화연구회, pp.129-148.
- 池内敏(2005) 「近世から近代に到る竹島(鬱陵島)認識について」『日本海域歴史大系 第四卷 近世遍1』清文堂, p.61.
- 岸本覚(1998) 「幕末海防論と「境界」意識」『江戸の思想』ペリカン社, pp.58-72.
- 田中彰(1973) 「吉田松陰像の変遷」中央公論新社, p.23.
- \_\_\_\_\_ (2014) 『吉田松陰』中公新書、中央公論新社, pp.82-101.
- 吉野彰(2002) 「吉田松陰と朝鮮」『明治維新と征韓論-吉田松陰から西郷隆盛へ』大和書房, pp.69-70.
- 吉田常吉校注(1978) 『吉田松陰: 日本思想大系54』岩波書店, p.224.
- 佐田白茅(1904) 『征韓論の旧夢談』明治文化全集 雑史篇, p.43.
- 佐田白茅(1875) 『征韓評論』東京: 忠芬義芳楼, p.15.
- 福木義亮(1942) 『吉田松陰大陸・南進論』誠文堂新光社版, pp.1-17.
- 小美濃清明(2009) 『坂本竜馬と竹島開拓』新人物往来社, p.13.

<Abstract>

A Study on Modern Korea and Yoshida Shoin(吉田松陰)  
- Focusing on Takeshima Theory(竹島論) -

Kim, Young

The study focuses on the statements made by Yoshida Shoi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nalyzes the statue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Peninsula theory,” which was spread mainly by the association of clans in the Shimokuchi prefecture.

Yoshiro Fukumoto’s “Yoshida Continent and Southern Progression” (1942) is an important document in te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modern Korea and is a publication worth analyzing to grasp the image of the time. His purpose of the “continental and southward theory” was Japan’s imperialistic national policy, which was to be established by Japan, South Korea, Manchuria and China as a whole, reaching the South Sea Bay, India, Africa and Australia. Shoin’s overseas expansion theory revived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for him, “continent” was indeed the rule of Asia as a whole, and the first step to that was the rule of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Shoin's thoughts on the invasion of Korea, he and his disciples analyzed letters about the “exploration of Ulleung Island.” Matsunaga sent four letters in total, two of which were for Takashi Kido about the development of Ulleung Island and the other two of which were for Genji Kusaka.

Key words : Yoshida Shoin, Ulleungdo, Yamaguchi, territorial dispute, Dokdo

투 고 일 : 2019년 3월 31일  
심 사 일 : 2019년 4월 17일  
게재확정일 : 2019년 5월 4일